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 HGIT Newsletter

2018년 제18호 가을호(9월)

발행인 조민호

편집장 임재민(35기)

편집위원

33기: 서정민 / 35기: 강승희

36기: 김희재, 박창진, 정유진, 주혜림

37기: 오은영, 최별

2018년 9월 창간/18호

<http://tourism.hanyang.ac.kr/>

2018년 9월 4일 #1

## 글의 순서

1. 2018년 전기 국관원 소식
2. 제84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3. 스포츠 메가이벤트의 이해
4. 폭염과 관광 - 새로운 여름 관광 트렌드
5. 폭염과 관광 - 새로운 여름 관광 트렌드
6. 국내 가을 여행지 추천 - 전남 가을 여행
7. 해외 가을 여행지 추천 - 일본 알펜루트
8. 항공 운항 용어 소개

## # 1. 2018년 전기 국관원 소식

### 학위수여식, 38기 신입생 및 38대 원우회 소개

글/구성 35기 임재민

안녕하세요. 편집위원장 35기 임재민입니다. 2018년 전기 국관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지난 학기까지 원우회를 위해 봉사해주신 34기 김지환, 강병준 원우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기에는 국관원의 밤 행사를 대신하여 2018년 6월 “국제관광대학원 Tourism & Future Insight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님, 조승연 작가님께서 관광산업에 대하여 현실적이며 관광 인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지향점에 대해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송길영 부사장, 다음소프트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겸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  
현 다음소프트 부사장



조승연 작가

UZEN 상임이사  
베를트림, tvN 어쩌다 어른 출연  
현 오마이뉴스 대표강사

또한, 이제부터 1년간 원우회를 이끌어갈 신임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35기 이우석, 부회장 35기 고 원구, 총무 36기 김경혜 님입니다. 원우회 임원이라는 어려운 중책을 맡아주시는 분들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6일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0명의 졸업생 선배님들과 조민호 원장님, 현성협 교수님, 행정팀 그리고 동문회에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5학기 동안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시면서 훌륭한 성과로 졸업하신 선배님들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 ◆ 졸업생 명단

- 관광·호텔전공 - 장 염, 야스타, 김민지, 이차연, 조경진, 허상범
- 융합관광전공 - 김연희, 문소현, 심요섭
- 융합관광정책개발전공 - 제상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원우회수첩 애플리케이션이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원우회 소식,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정보 교류 및 친목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학위수여식 이후 38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과원으로 진학하신 신입생분들 환영합니다. 계획하신 성과 이루시길 응원하며 입학 축하드립니다.

#### ◆ 신입생 명단

[국제관광학과] 15명

- 관광·호텔경영전공 - 단 민, 강운철, 성주한, 송미나, 신예린, 안필호, 유은휘, 유태광, 윤연숙, 이 훈, 정용진, 최연주, 최정원
- 융합관광전공 - 이원종, 최민경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7명

- 문화엔터테인먼트관광전공 - 이이양, 정민준, 초명휘, 시디크아부바커, 안지수, 유지화, 이동윤

마지막으로 뉴스레터 편집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국과원 소식, 업계 동향, 관광 정보 등 국과원 원우들과 많은 소식을 나눌 좋은 기회가 되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정팀 통하여 ‘재능기부장학’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주소록 메뉴에 들어갑니다.



2.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들어갑니다.



3. 정보수정 버튼을 눌러 정보를 수정합니다.

## # 2. 제84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2018년 7월 4일 ~ 7월 6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제84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글/구성 36기 김희재

### 1. 서울국제학술대회 참여 개요



국제관광대학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김진옥 교수님의 지도로 '치유관광연구' 수업을 수강하였던 전원 6명이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여 발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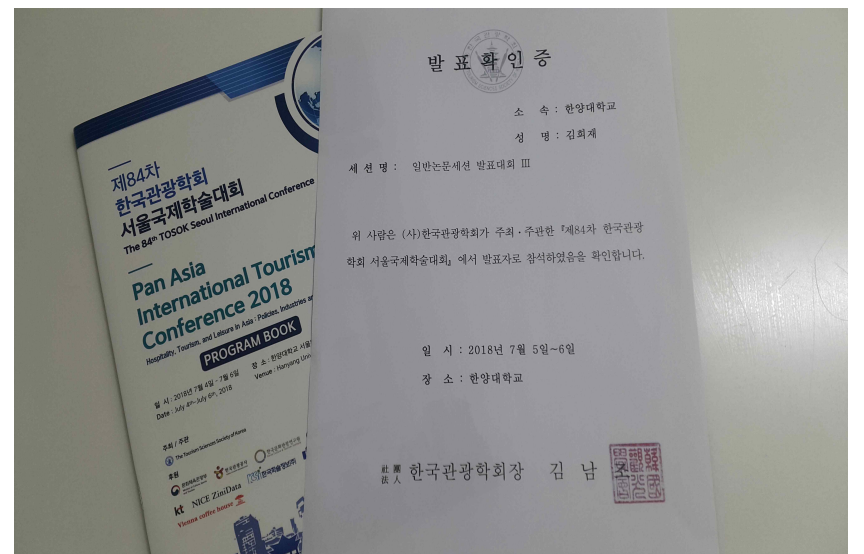
수업 중에 치유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문실습을 직접 해주셨고 석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통계도 특강으로 후배이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논문 한 편씩 작성해보았고 학회에 발표까지 해보는 떨리고 뿌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 지도교수님 김진옥 : 국관원 선배이시며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세한대학교 항공학과 교수님으로 재직중이십니다.
- 35기 김주영 : 카지노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신뢰와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35기 이미희 :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동기가 진정성 및 해외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 '꽃보다 할배' 시청자를 대상으로 -
- 36기 김영아 : 농촌체험프로그램 환경단서와 축제진정성이 만족도 및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체리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36기 김희재 : 외식 리얼리티 프로그램 '삼시세끼'의 시청 동기가 국내 여행 의사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확장된 계획행동 이론을 적용-
- 37기 김서정 : 기술수용모델(TAM)을 적용한 SNS 관광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 37기 문태윤 : 지각된 회복환경이 주의회복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농촌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논문투고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제목 및 이론적 고찰 부분은 몇 번의 수정을 거듭하여 6명의 제목이 위와 같이 완성되었고 정규수업 외 팀원들이 모여 스터디도 하며 통계분석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 서울국제학술대회 스케치



학회발표를 하면서 내 논문에 대한 검증과 질문을 다른 교수님들께 조연도 받고 더 많은지식을 습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학우들끼리 뽕뽕 뭉쳐 서로의 발표를 피드백해주고 사진도 남겨주며 더불어 모교인 한양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이름을 올리며 평생 남을 발표확인증도 받는 뜻깊은 2박 3일 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리스마있는 김진옥교수님의 '치유관광연구'수업을 듣게 되어 영광이었고 석사과정의 쉽지 않은 부분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시고 지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달드립니다.

모두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더욱 성장하는 국관원 후배들이 되겠다며 다짐하였습니다.



## # 3. 스포츠 메가이벤트의 이해

2018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를 통해 스포츠 메가이벤트의 진행과 구성을 알아보자!

글/구성 37기 최 별

### 매년 개최되는 스포츠 국제대회 및 총회 엿보기



[2018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75kg 이선미선수 금메달 획득]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아시아경기대회가 한창인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을 돕고 있는 저는 국제대회, 국제회의 등을 진행하는 실무자로서 국가대표선수단이 해외 시합을 나갈 때 생기는 일들 및 궁금한 점을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대회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아시안게임, 올림픽처럼 여러 종목이 같이 하는 종합대회, 또 각 종목당 열리는 세계(아시아)선수권대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없는 해에는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종목의 가장 큰 규모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올림픽은 모든 종목이 함께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는 매년 해당종목에서 세계 랭킹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이번에 제가 파견 나갔던 대회는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로 세계의 모든 주니어(만 20세까지) 역도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이며 세계역도연맹에서 주관하고, 개최국 연맹과 조직위원회에서 대회를 준비합니다.

보통 선수단은 조직위에서 선정한 호텔에서 묵게 되는데, 숙박과 식사가 패키지로 묶여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지만 보통 1박당 숙박과 3끼 식사를 포함하여 싱글룸 150불, 더블룸 130불 정도로 책정됩니다. 조직위 선정 호텔에서 묵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 모든 관련 회의 및 경기장으로 가는 셔틀버스 서비스가 있으며 조직위사무실이 호텔 내에 위치하다 보니 편의를 위해서도 지정 호텔에 묵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경기는 도핑검사를 실시하는데, 도핑검사 비용도 선수별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숙박과 식사 그리고 등록비를 포함한 도핑비(보통 150불~200불)가 선수와 임원 한 명 당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일단 입국하게 되면 공항에서부터 조직위의 환영 및 안내를 받고 버스에 탑승해서 등록센터로 갑니다. 가서 모든 금액은 현지 화폐 기준이 아닌 달러로 계산을 하고, AD카드(경기장, 워업장 및 훈련장 출입카드)목걸이를 받습니다. 보통 식사는 호텔 내부에 연회장을 마련하여 세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AD카드를 소지한 선수와 임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폐막식에서 사우디 국가대표팀과 함께]

일반적으로 대회가 있으면 대회만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올림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 규정이나 다른 사항들이 바뀔 수 있는 세계연맹총회, 아시아연맹총회 혹은 IOC총회(올림픽의 경우)가 함께 열립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없더라도 총회에는 꼭 참석하는 나라가 있을 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세계주니어 대회에서는 역도강국 북한 정부의 간부 2명이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상부의 지시로 선수들은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회의에는 참석하셔서 열정적으로 의견을 어필하고 가셨습니다. 총회에 참석해 정세를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일은 선수육성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에 계시는 원우님들이 많으니, 선수단 출 입국 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몇 백키로 씩 되는 바벨을 들고 다니지 않고 역도화와 역도복만 챙겨 다니기에 큰 문제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펜싱은 칼 백이 항공사 수하물 규정을 벗어난 길이라서 출국 때마다 애를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육상의 장대높이뛰기 종목은 장대 길이가 워낙에 길어 정말 난감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귀국 할 때에 외국에서 잘못 잡히면 한참을 묶여있어야 하고, 바이애슬론이나 사격은 예민한 총기류를 소지 해야하기에 항상 세계 어디를 가도 카운터에서, 세관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말로 참 '웃픈' 이야기 같습니다.

한정된 지면상의 제한으로 모든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우리 학우님들이 업무 중에 선수단을 마주하시게 된다면 한번쯤 미소지어 주시고 파이팅! 하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세계역도연맹총회에서 북한 임원과 함께]



## # 4. 테마별 관광콘텐츠

개성 강한 테마별 관광지 소개합니다!

글/구성 36기 주혜림

안녕하십니까? 36기 주혜림입니다. 방학이 되면 다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디로 여행갈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인 여행도 좋지만 테마별 관광콘텐츠를 찾아보고 매력적인 관광지를 여행해 보는 것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색적인 관광 상품을 체험해보길 바라겠습니다.

### 1. 문화·예술

2018년은 '책의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도서축제·독립서점 등을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엮고 책 관련 명소를 찾아가는 '책 여행'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최근 여행 트렌드에 맞춰 부산을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책의 해'를 기념하고 최근 여행트렌드인 '인문학 여행' 콘텐츠 개발을 위해, 부산의 문학과 보수동책방골목을 연계한 '문학여행의 고향을 만나다, 부산 책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최근 핫 하게 뜨고 있는 기장 카페투어 프로그램과 야경투어, 연중 다양한 축제와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또, 갈매길 트레킹투어, 요트·서핑 등 해양레포츠 액티비티, 실버·가족 대상 부산온천 & 힐링 프로그램,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부산의 맛 프로그램 등 4개 콘텐츠를 올해 부산의 킬러콘텐츠로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야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처음 열려 큰 인기를 얻었던 수원 문화재 야행입니다. 수원 야행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 야행'의 하나로 밤에 수원화성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원 문화재 야행 (출처:수원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중 템플스테이는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조용하고 차분하게 몸과 마음을 충전시키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템플스테이는 다양한 테마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내소사'의 '선유도 트레킹 템플스테이'와 '진관사'의 '웰빙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용주사'의 '명상 지혜 템플스테이', '화엄사'의 '지리산 다도 템플스테이' 등이 유명합니다.



[이기대 도시자연공원(갈매길) (출처:부산관광공사)]

### 2. 전통 문화

궁궐은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잘 보존된 문화유산입니다. 언제 어느 때 찾아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깊은 역사 전통의 향기를 전해주는 4대 궁을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문화재야행, 향교·서원 활용 프로그램 등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즉위 600주년 즉위식 재현,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은 잘 알려진 궁궐 투어인데, 그 외에도 수원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 자전거택시 야간 투어 '한여름 밤의 궁(宮)'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수원의 대표 관광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인데, 수원화성의



[진관사 (출처:진관사 홈페이지)]



## # 5. 폭염과 관광 - 새로운 여름 관광 트렌드

글/구성 37기 오은영

낮 최고온도 '40.6도' 강원도 홍천에서 측정된 76년만의 폭염 신기록입니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으로 생활 패턴의 변화는 물론 휴가계획을 변경하는 등 곳곳에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눈여겨볼 점은 폭염으로 인한 새로운 관광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고온의 기후를 가진 타국의 관광개발 사례 또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폭염이 만든 새로운 관광 “호캉스 물캉스 굴캉스?”



한창 성수기를 맞아 북적거렸을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5월에 비해 관광객이 1/3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의 피서객은 일평균 30%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부산 해운대에도 일몰 후에 사람이 더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찜통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휴가를 즐기는 인도어 활동이 새로운 관광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물캉스’ ‘호캉스’ ‘북캉스’ ‘굴캉스’ 등이 있습니다. 각각 시원한 쇼핑몰, 호텔, 서점, 동굴 등으로 피서를 간다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7월 평균 유동인구를 분석한 빅데이터에 따르면 코엑스의 유동인구는 7% 증가했고 해운대는 9% 감소했습니다. 또한 ‘굴캉스’의 적합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충남 보령의 보령냉풍욕장은 작년대비 관광객이 45%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관광형태의 변화로 호텔과 테마파크 등 인도어 활동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야외에서 진행되는 지역축제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8월4일 열린 강원도 화천군의 ‘2018 화천 토마토 축제’에서는 쿨링포그를 활용한 행사진행으로 참여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프리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더운 지역인 대구에서는 버스정류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도시림 면적을 넓혀 그늘막 효과로 도시기온을 낮추는 등 더위에 대응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또한 참고하여 야외활동이나 해수욕장 같은 아웃도어 관광지들은 폭염에 대한 시설적인 대안과 더불어 해가 지고 난 뒤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나이트 타임 행사 등을 개발하는 것이 그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 2. 고기온 타국의 관광개발 사례

이러한 더운 기후에도 대표적인 관광지를 잘 살리고 있는 ‘이열치열’ 타국의 관광개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중동 두바이 ‘사막투어’ >

사륜바이크를 타고 직접 운전하며 사막을 가로지르는 체험을 비롯해, SUV를 타고 능숙한 현지인의 운전습시에 따라 사막의 능선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온몸으로 사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몰 후 시원해진 뒤에는 베이스캠프에 모여, 현지 저녁식사를 즐기며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는 이색 관광지입니다.



#### < 중국 투루판 ‘화염산 투어’ >

서유기에 등장하는 ‘화염산’은 상상할 수 없는 고온으로 산에 불이 붙어 손오공과 삼장법사의 앞길을 막았다고 전해집니다. 실�크로드 줄기인 투루판 지역은 위구르족 특유의 생활양식과 중동과 동양의 문화가 섞인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화염산’ 줄기를 따라 사륜바이크로 사막 산을 올라가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고, 화염산 메인 관광지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큰 온도계를 보며 서유기의 배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 태국 ‘송크란 축제’ >

태국의 설날로 불리는 ‘송크란’은 혹서기 시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부처의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 불상을 청소하는 행위에서 유래된 ‘송크란 축제’는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뜻으로 서로에게 물을 뿌립니다. 일 년 동안 더위 속에서 잘 버티자며 행운을 빌어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물총축제로도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착안한 신촌 물총축제, 워터밤 페스티벌 등이 개최됩니다.





## # 6. 국내 가을 여행지 추천 - 전남 가을 여행

### 다가오는 가을 숨겨진 여행지 전남 순천

글/구성 35기 강승희

가을... 감성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계절!

순천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을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올가을 순천여행코스인 좋은 장소들을 찾아 함께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 ◆ 순천만국가 정원

다양한 테마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지금은 국가 정원 제1호로 독특한 풍경과 이국적인 풍경이 느껴지는 세계 각국의 정원, 곳곳의 전망대 등이 있어서, 다양한 구경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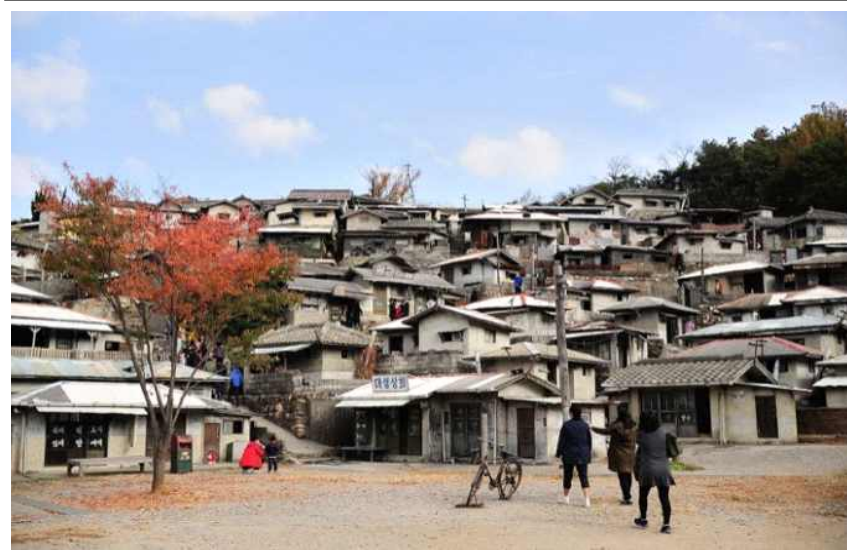
순천만정원을 걷다 보면 세계 각국의 특징들이 숨어있는 이국적인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풍의 네덜란드 정원, 독일정원과 일본정원, 태국정원 등 다양한 각국의 정원을 감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세계 어린이들의 희망을 적어 놓은 꿈의 다리, 순천만습지, 그리고 다양한 테마의 참여정원 등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을 통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은 순천호수 정원입니다. 순천의 도심지역, 순천의 동천, 순천시내 봉화산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호수정원 한복판에 보이는 언덕들은 일종의 전망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 순천드라마촬영장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시대별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순천여행코스 순천드라마촬영장은 드라마 자이언트, 제빵왕김탁구 등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순천여행코스에서 인기있는 관광 명소이며 친구, 연인, 가족들과 낭만적인 추억을 쌓기 좋은 여행지입니다.



#### ◆ 선암사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된 선암사는 순천을 대표하는 천년 고찰입니다. 천년고찰의 길고 웅장한 역사가 서려 있는 선암사는 아름다운 절로 명성이 높습니다. 선암사 주위로는 동백, 단풍, 밤나무 등이 울창하고 특히 가을 단풍이 유명합니다.

특히 매표소에서 사찰 초입에 이르는 1.5km의 숲길은 “전국 아름다운 숲 대상”을 받을 정도로 명품 숲길로 유명합니다. 선암사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대가람으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만다라, 동승 등 불교 영화의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소중한 불교 문화 유산들을 지켜온 천년고찰 선암사.

올가을 선암사를 방문하여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 # 7. 해외 가을 여행지 추천 - 일본 알펜루트

### 일본 단풍 여행지 알펜루트

글/구성 33기 서정민

알펜루트는 유럽 알프스에 견줄 만큼 아름답다 하여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 알펜루트는 일본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산악 관광 코스로, 일본 후지산과 함께 일본 3대영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약 3000M 높이의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장엄한 스케일로 '국제 산악관광 루트'입니다. 구간마다 다양한 장관을 자랑하고 겨울이 되면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고, 가을이 되면 울긋 불긋 단풍이 물들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느낌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케이블카, 로프웨이, 하이랜드 버스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관광을 할 수 있고, 각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탈것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에 접어들면 세계적인 단풍여행 코스로 뽐히며 단풍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납니다.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네쓰리 온천의 노천탕도 코스 중간에 즐길 수 있는 단풍명소 중 하나입니다. 보통 단풍은 10월에 접어들면 절정을 이루며 구로베 협곡에 있는 도롯코 열차가 관광 코스 중 가장 관광객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은 신호타카 로프웨이입니다. 신호타카 로프웨이는 일본에서 유일한 2층 곤돌라 형태로 하늘에서 한눈에 즐길 수 있으며, 북 알프스 산봉우리의 웅장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로프웨이를 타고 전망대에 도착을 하면 사방팔방으로 장엄한 북알프스 산맥들이 파노라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해 4월 중순에 오픈하여 11월 하순이면 폐쇄 하므로, 한정된 기간에만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펜루트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추천드리자면, 먼저 구로베 협곡입니다.

구로베협곡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을 즐기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정도를 달리는 코스의 구로베 열차를 추천합니다. 열차에 탑승해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보다 좋은 힐링 코스가 없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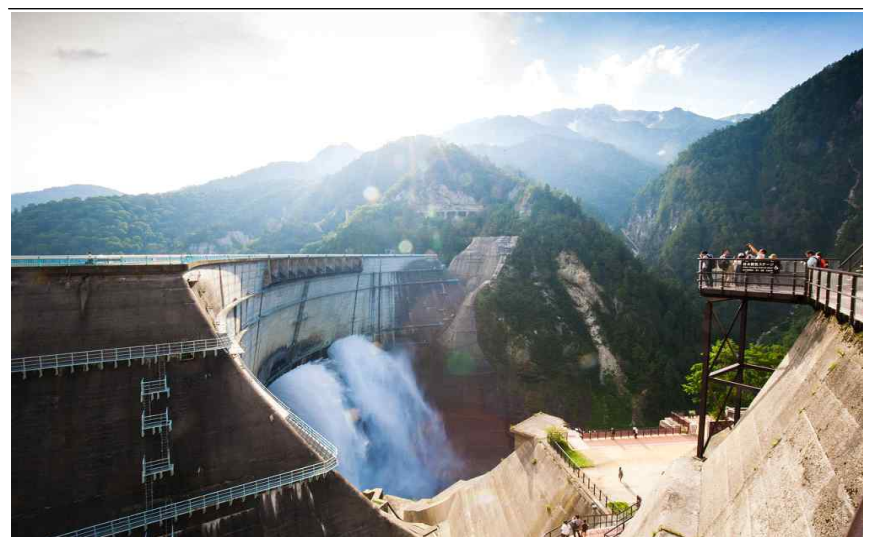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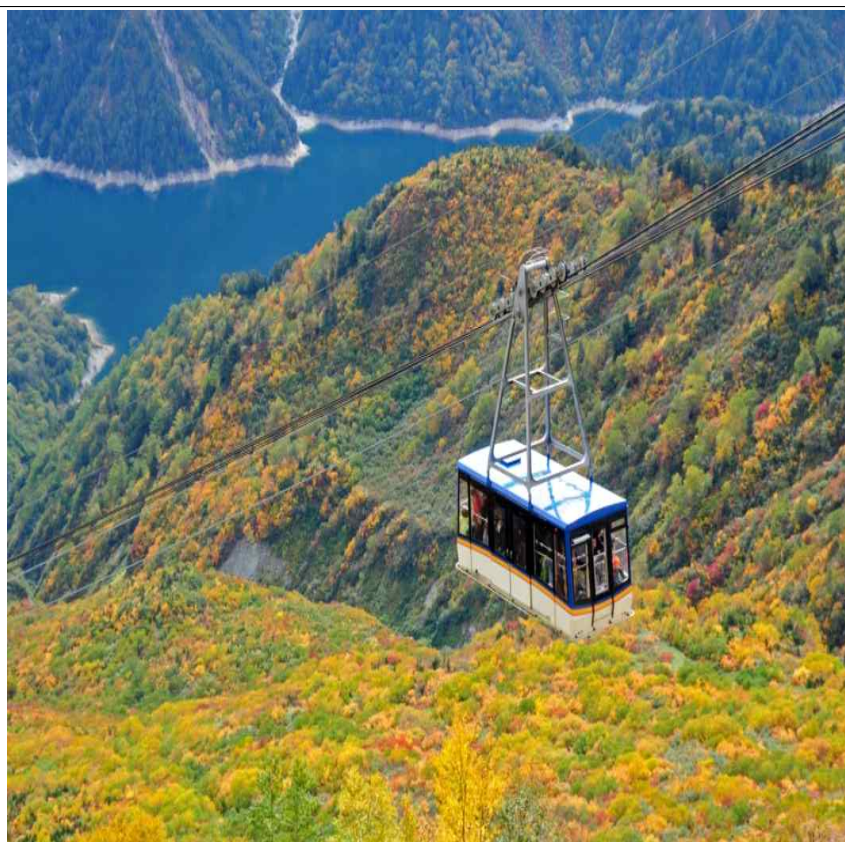
파스텔로 칠해 놓은 듯한 풍경을 볼 수 있으며, 한 시간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이 곳 또한 사계절 모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중 하나입니다.

풍경을 모두 즐겼다면, 다음 코스는 시라카와고 합장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곳이며, 이 곳은 외부와 단절되어 그들만의 전통이 고스란히 자리잡은 곳으로, 갓쇼즈꾸리라 불리는 세모 모양의 전통 목조 가옥의 집을 볼 수 있으며, 이런 형태의 지붕 모양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합장촌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평화롭고 조용한 산골 마을의 정취를 느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을 가면 항상 많이 관광하게 되는 오사카, 교토등 유명한 관광지도 좋지만, 보다 특별한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알펜루트로 이번 가을여행을 추천드립니다.





## # 8. 항공 운항 용어 소개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항공 운항 용어 소개해드립니다.

글/구성 36기 정유진

우리 국관원에는 승무원 원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른 업계의 원우님들은 가끔 승무원들이 쓰는 용어가 궁금하실듯하여 지금부터 항공용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항공 운항용어 소개

- ◆ Show up : 당일 비행을 하는 승무원이 비행을 위한 준비
- ◆ Out Bound : 인천(김포)에서 출발하는 비행
- ◆ In Bound : 현지에서 출발하는 비행
- ◆ 신 송 : 업무 인수인계  
(Out bound 승무원이 In bound 승무원들을 위해 서비스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것)
- ◆ Standby : 스케줄이 나오기 전 대기하는 것
- ◆ Galley :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내서비스를 위한 모든 장비가 탑재되는 곳입니다.
- ◆ Bunk : 승무원의 휴식공간입니다. 장거리 비행 시 승무원들이 돌아가며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눈을 붙이는 곳입니다.
- ◆ 기판 : 기내 면세품 판매
- ◆ Quick turn : 목적지에 도착하여 공항쪽으로 바로 돌아오는 것
- ◆ Lay over : 비행 후 또는 해외 체류지에서의 휴식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 ◆ 트랜짓(Transit) : 경유로, 경유지에서 항공기의 재정비를 위해 같은 항공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는 것을 말합니다.
- ◆ 트랜스퍼(Transfer) : 환승으로, 경유지 공항에 내려 대기하다가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 2. A380 기종 소개

에어버스 A380은 에어버스가 제작하는 2층 구조의 초대형 항공기입니다. 대형 항공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보잉의 747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가격은 4억달러(4,132억원)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호텔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성능만큼이나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한항공은 주문 8년 만에 인수 하였으며 세계 6번째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A380 소개 \*출처:중앙일보]



[A380 갤리(Galley)]



[A380 기내]